

아시아 중견공무원 초청 연수 20주년

- 우리나라 경제·금융정책 경험 공유 및 역내 금융협력 강화 도모

기획재정부는 6.30.(월)~7.11.(금) 2주간, 아시아 12개국* 재무부·중앙은행 중견급 공무원 21명을 대상으로 「아시아 중견공무원 금융정책 연수」를 실시한다.

* 아세안(ASEAN) 8개국(라오스,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 몽골 + 중앙아시아 3개국(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동 연수는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들과의 교류 및 금융협력 강화 등을 위해 '06년부터 시행되었으며, '09년부터 몽골 및 중앙아시아까지 추가하여 초청 대상국을 확대하였다. 작년까지 19년간 총 379명이 연수과정을 이수하였다.

올해로 20회째를 맞는 이번 연수는 국내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들이 강연자로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경제·금융 발전 과정과 정책 경험을 공유한다. 동시에 한국은행, 재정정보원, 한국거래소 등 정책현장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문화 현장방문도 확대하여 보다 현장감 있는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2주간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금융·경제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역내 금융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금년 11월에 아시아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도 개최하여, 우리나라와 아시아 재무부·중앙은행간 인적교류와 상호이해 증진, 역내 경제·금융 분야 협력을 지속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국제금융국 금융협력과	책임자	과 장	심승현 (044-215-4830)
		담당자	사무관	김지영 (89rlawldud@korea.kr)